

이름 : 조아영

나이 : 22세

직업 : 대학생

수입 : 월 50만(알바)

거주지 : 서울시 서대문구

시나리오 : 최근에 첫 소개팅이 잡힌 서울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조아영씨(22)는 대학생활과 알바가 바빠 현실에 치여 살고 있다.

첫 소개팅인 만큼,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 새 옷을 사야 했지만, 바쁜 현실때문에 따로 옷 사러 갈 시간이 없었던 조아영씨(22)는 인터넷 쇼핑을 이용해 소개팅에 입고 나갈 옷을 준비하려고 했다.

알바 도중 틈틈이 찾고 알아보다 보니 시간이 늦어져 소개팅 전 날이 되어서야 옷이 도착하게 되었는데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집에 가서 입어 본 결과 본인이 생각한 사이즈도, 심지어 핏도 화면너머의 모델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 할 정도로 괴리감이 있었다.

구매 전 인터넷상에서 본 모델의 모습은 [The 세련]이라고 할 정도로 멋있고 귀엽고 예뻤으나, 전신거울의 앞에는 마치 졸부가 명품을 걸친 것만 같은 언밸런스함 만이 감돌고 있었다.

결국 소개팅에서 좋은 결과는 없었고, 이는 필시 인터넷 의류 쇼핑의 실패 때문이라고 생각한 조아영씨(22)는 다시는 온라인상에서 의류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